

■ 전국 기능대회 준비 바쁜 광주 대표 '3인방'

'냉동기술 名匠' 하루 14시간 맹훈

"꼭 금메달 따 국제기능올림픽 출전"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생산직 기괴와 기능인 출대 현상에도 불구하고 명장(名匠)을 꿈꾸며 하루 14시간씩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는 학생들이 있다.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제4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냉동 기술 종목 광주 대표로 출전하는 광고공고 고창석·신현석(이상 3년)·유준선(2년)군.

이들 '3인방'은 지난 4월 예선 격으로 치러진 광주기능경기대회에서 나란히 금·은·동메달을 차지, 전국 대회 출전권을 따낸 이후 강도높은 훈련을 치르고 있다.

지난 1일부터는 학교 내 숙소에서 학습훈련에 돌입해 잠자는 시간 7시간, 아침·점심·저녁 식사 3시간 등 10시간을 제외하고 매일 14시간씩 고단도 기술을 연마하고 있다.

높이 1m 정도의 작업대 앞에 온 종일 서서 훈련을 하는 닷에 허리가 아프고 다리도 뻐근하지만 경기 출전을 목표로 지난 2~3년 동안 피땀을 흘려온 것을 생각하면 고통이 순식간에 잊혀진다.

이들이 출전하는 냉동기술 종목은 첫째 날 7

시간, 둘째 날 7시간, 셋째 날 3시간, 네째 날 1시간 등 18시간 안에 최고 성능의 냉장고를 한 대 만드는 것. 전기배선 및 배관 상태, 프레온 가스 충전, 안전관리 등 작업과정은 물론 폐수 냉동 성능까지 평가를 받는다. 특히 평가관이 일부러 고장을 내면 그 원인을 신속히 찾아 수리를 마쳐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금메달 수상자에게는 오는 2007년 11월 일본 시즈오카에서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참가 후보 선수 자격이 부여되며, 금·은·동메달 수상자 모두에게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상금은 금메달 1천200만 원, 은메달 800만 원, 동메달 600만 원이다.

이들은 학교 선배인 정동치(22)씨가 지난 2003년 스위스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냉동 기술 종목 금메달을 차지,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전세계에 과시했던 순간을 저마다 마음 속에 떠올리고 있다. 함께 출전하는 동료 2명을 포함해 전국 각 지역을 대표해 출전하는 32명과 선의의 경쟁을 펼쳐 4년 만에 패권을 되찾아오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올해로 41년째 맞는 전국기능경기 대회가 오늘날 한국을 경제규모 세계 10위로 올려놓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고, 한국이 지난 1977년 제23회 네덜란드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한 뒤 2005년 제38회 핀란드 대회까지 모두 14번의 종합우승을 차지한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신현석군은 "지난 3년간 휴일이나 방학도 모두 잊은 채 훈련에 매진한 만큼 산업체 현장의 실무자보다 우수한 기술력이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친구 칭찬이나 후배 선수들도 미친가지 생각이겠지만 꼭 금메달을 획득해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4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는 광주에서 34개 종목 956명이 출전하는 등 모두 58개 종목에 전국 16개 시·도 대표 1천749명이 참가해 깊고 닦은 기량을 겨룬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제41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냉동기술 종목 광주대표로 출전하는 고창석(왼쪽)·신현석(가운데)·유준선(오른쪽)군이 배관 제작에 대해 논의하며 막바지 점검훈련을 하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인문학 존립근거 위협받고 있다"

고려대 문과대 교수 121명 '인문학 선언'

고려대학교 문과대 교수 20여명은 15일 오전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인문학의 위기 타개를 촉구하는 '인문학 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문과대 설립 60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연속 기획 심포지엄('자우·정의·진리' : 시장 근본주의를 넘어서')에 앞서 문과대 교수 121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표한 선언문에서 "무차별적 시장논리와 효율성에 대한 맹신으로 인문학의 존립 근거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급속한 산업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도덕의 해체, 생명 경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때일수록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인문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광 문과대 학장은 "그동안 인문학의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글이 산발적으로 발표되기는 했지만 교수들이 한 목소리로 위기 타개를 촉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이번 선언의 의미를 부여했다.

7개 사립대 입학처장회의 대표인 혁선해·성균관대 입학관리처장은 이날 "2008학년도 입시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은 50% 이상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며 "따라서 2008 입시에서는 학